

오기 메이크업 어긋나면

피부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여드름은 더이상 청춘의 심볼이 아니며 피부에 핀 염증질환이라는 것을 안다.

요즘같은 대량 정보전달사회에서는 각 마스크들이 앞다퉈 의학정보를 여과 없이 전달해 주는 바람에 여드름이 호르몬에 관계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드름에 대한 호르몬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드름이 생겼을때 무턱대고 호르몬제로 치료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호르몬과 여드름은 분명 관계가 있으며 남성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하고 또 다른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은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의사의 처방없이 호르몬제인 에스트로젠(여성호르몬)을 쓰면 가장 효과적으로 좋아지는 수도 있지만 오래 사용하면 그 부작용이 심각해 요즘은 병원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호르몬이란 체내에서 극미한 양이 생산되어 내분비대사에 관여하는 물질로 이상이 생기면 여러가지 임상소견과 함께 피부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피부질환 치료에 가장 광범위하게 또는 잘못 쓰이고 있는 스테로이드의 경우 항생제보다 우수한 소염효과를 내 비교적 심한 여드름이나 특수한 여드름 치료에 널리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자꾸 바르는 사이 피부가 아주 얇아지고 실핏줄이 드러나는 등 심한 부작용이 생기고 여드름 치료에 오래 사용했을때 모낭의 과각화와 폐쇄를 가져와 낫기 힘든 스테로이드성 여드름이 된다.

스테로이드성 여드름은 일반적인 여드

름과 달리 피지선의 분포나 연령에 관계 없이 때로는 급성으로 나타나나 붉은 일은 거의 없고 염증성 구진이 여러개 모인 낭종을 형성하는 일도 없이 어떤 약을 발라도 좋아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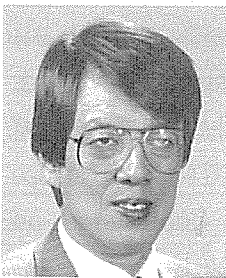
이들 물질이 포함된 연고제는 피부에 자그만한 염증이나 원인을 밝힐 의미가 없는 이상이 생겼을때 조금만 발라도 희한하게 낮고 안바르면 다시 돌아나기 때문에 몇해씩 계속 바르는 사람이 많다.

어떤 여성은 화장하기 전에 일단 이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고와지는 듯하지만 시간이 가면 털이 많이 나거나 여드름이 생기고 색소이상도 온다. 심해지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부위축현상이 생기며 피부생리에 변화를 초래, 내성을 키워주고 정상기능을 약화시킨다.

호르몬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여드름발생에 관여하고 악화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치료에 호르몬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호르몬활동이 왕성해지는 사춘기에 피지선이 자극되고 폐쇄돼 피부에 항상 존재하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세균이 그 저류된 피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여드름이라고 알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소실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 30~40대에 그것도 얼굴 아닌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이 생기는 수도 있는데 여드름이라고 진단하면 믿지 않는다.

피부의 피지를 제거하면서 각질층을 가볍게 벗겨주고 피지선의 입구를 개방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해도 여드름은 잘 낫는다. 빨리 또는 확실히 나오려고 호르몬제를 남용하는 것은 더욱 더디고 더 나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㉞



국 홍 일
(피부과 전문의)